

가자, 소비자에게!

소비자가 인정하는 양계산물 생산을 위해, 파이팅!



정 세 진 서부사료(주) 대표이사/본지 편집위원

오 리나라 양계산업의 주인은 누구일까? 진정한 우리의 고객은 과연 누구일까?
ㅏ 다소 엉뚱한 질문이라고 생각될지 모르나 이 주제에 대해 심도 있고 차분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10년 전의 양계산업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엄청난 성장과 발전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양계산물, 즉 닭고기와 계란이 식품으로서 인정받는 가치는 어느 수준일까?

정부나 공인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수치화되어 발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주변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질문해 본 결과 그리 기대할만한 수준은 되지 못했다.

소비자 시대를 인정하라

- 소비자의 want와 need, 무엇이 더 중요할까?

국민가수 김건모가 부른 핑계라는 노랫말 중에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라는 구절이 있듯이 "소비자의 wants와 needs, 무엇이 중요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단어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지난 2003년 7월부터 '계란을 사랑하는 사람들(www.iloveegg.or.kr)' 를 운영해 오면서 실시한 여러 차례 설문조사 결과, 아직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양계산물의 품질이나 안전성 면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었다.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계란의 생명인 '신선도'!

오로지 이 하나에 집중하여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한 결과 소비자자들의 신선도에 관한 인식이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선도'는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하고, 탁월한 아이디어일수록 간단 명료(simple)하다는 이론, '단 하나(SMP Single Mind Proposition)' 를 심어준 결과인 셈이다.

한편 점점 더 고급화되고 까다로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최고의 마케팅 기법은 무엇일까? 식품선택시 소비자들이 가장 우선시 하며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소비자가 진정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읽어내고 보증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기본사항일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 철저한 Give&Take 원리가 세상을 지배한다

무슨 일이든 일정한 성과와 결과를 기대한다면 반드시 기본적인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만 한다. 계란과 닭고기가 우수한 단백질 식품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계란이나 닭고기 소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양계산물에 대한 소비 급증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코자 한다.

양계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국내 전문가는 물론 세계 각국의 저명한 인사를 초청하여 시내 한복판에서 양계산물의 식품으로서 가치와 안전성에 대해 심포지움이나 세미나 형태를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다. 주대상은 일반 소비자, 가급적이면 주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세미나를 진행한다면 머지않아 양계산물 소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확신한다.

한 성공사례로 녹차 및 각종 유산균에 대한 세미나를 말할 수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매년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종 신문 잡지 및 방송에 보도됨으로써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효능 및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소비 또한 자연스럽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제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차원에서 준비된 각종 데이터를 기본으로 설득해야 소비자의 한층 더 수준 높아진 입맛에 맞출 수 있다. 농장 경영 활동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더 나아가 보증할 수 있는 식품생산과 공급에 기여한다는 공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력과 열정이 조화를 이뤄 빛어내고 있는 아름다운 결실이 양계분야에서도 활짝 꽃 필 그날을 기원하며, 대~한민국 파이팅, 양~계산업 파이팅, 양~~계인 파이팅!! 양계